

길 위에 폴리(Folly)가 있다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대학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저것이 뭘지 안가?”, “몰라! 암튼, 뽕 잡한다 찌런 것들이 여기저기 몇 개 보이긴 하데!” 40대쯤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필자 앞을 지나가면서 나누는 얘기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필자도 가끔은 길을 걷다가 조형물 작품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 같은 심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 낯선 구조물의 등장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조형물이 들어서고, 일정 장소에선 몇 해 계속 서 있지만, 그 조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말해주는 이도 없다. 얼핏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거나 어떤 용도의 조형물인지는 모르는 것이다. 바로 폴리(Folly)를 일컫는다. 본디 폴리는 고전주의 시대 유럽 대저택에 설치된 장식물이나 구조물을 뜻했지만, 근대에서는 도시재생 차원의 기능적 역할과 예술적 가치를 더한 조형 예술(plastic arts) 작품을 의미한다.

스위스 출신의 ‘베르나르 추미(B. Tschumi, 1944~)가 파리 19구역에 있는 라빌레트(La Villette) 공원에 30개

가 넘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폴리가 탄생했다. 라빌레트 공원은 일련의 폴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아이디어와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장소성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광주 폴리는 지난 2011년 비엔날레재단 이사회의 제안 등으로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1차는 ‘광주의 역사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옛 광주 읍성 터를 따라 그리고 농장다리에도 추가해 총 11개의 폴리가 설치됐다.

2차 광주 폴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인권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2013년 8개가 설치됐다. 이는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 정신을 공공예술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3차는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협의회와 광주 폴리 운영 평가단을 통해서 2017년에 완성됐다. 도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광주를 드러내려는 방안으로 ‘도시의 일상성,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11개가 설치됐다.

2020년 4차 광주 폴리는 광주의 정체성 구현과 광주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무등의 빛’은 무등산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가로 74m, 높이 8m의 크기의 구조물로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돼

있고, 미디어아트 광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5차 폴리는 ‘순환 폴리’라는 주제로 저탄소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고민했다.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들이 교집합을 이뤄낸 것이다. 이를 끝으로 광주 폴리는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166억원을 들여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주 폴리는 35개의 작품을 남겼다.

광주 폴리에 대한 평가는 시민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에 따라 상반된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다. 도시가 가진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 폴리는 광주만의 공공문화예술 작품으로 조망된다는 관점에서 주변의 여러 경관과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긍정적인 도시 미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폴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폴리는 스마트폰 QR코드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거나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폴리라는 공공예술작품을 통해서 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되새김하고, 문화도시 광주의 저력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해본다.

社說

한강 노벨문학상, 지역의 자긍심 되길

소외된 한국문학 세계에 알려

소설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오후 8시(한국시각)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 한강을 선정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세계 3대 문학상의 하나인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던 ‘채식주의자’부터, 5·18 광주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소년이 온다’까지 한 작가가 파고들었던 문학의 본질에 합당한 심사평이다.

한강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높은 수준을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쾌거다. 한강은 13살 때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보여준 5·18 광주항쟁 사진첩 속 희생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깊은 물음을 품게 됐다고 했다. 2016년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 ‘채식주의자’ 역시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5·18 광주

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에서는 당시의 아픔 뿐 아니라 여전히 5·18을 헐뜯고 비난하는 세력이 견재한 현실을 파고들었다. 한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통해 5·18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강의 수상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 노벨상이며, 모두 지역출신이라는 점이다. 한강 작가는 광주에서 태어나 효동초등학교를 다녔다. 한 작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에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작가와 연관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노벨상 수상을 기념한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K-POP과 영화, 드라마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부만 소외됐었다. 소외된 한국문학을 단숨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문학을 키워낸 지역에서 큰 잔치를 여는 건 당연지사다. 한 작가의 수상은 지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짹짹’ 핵 폐기물 시설 주민 향한 폭거다

사업경위 등 투명하게 밝혀야

해남군이 관내 간척지에서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지질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높은 방사능을 가진 위험한 핵 폐기물이다. 인체에 유해한 핵 폐기물을 주민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마저 모르게 추진했다면 명현관 해남군수의 말처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간척지 부지를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임대해 심부 지질 특성연구를 위한 지표 및 지형측량조사를 위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학술적 목적의 지질조사로 사업이 승인됐지만 지난 10일 실시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안전기원제’ 문구를 본 농업인이 제보해 해남군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 해남군은 안전기원제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영산강사업단에 임대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발주처인 지질자원연구소에도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수 십만 년 이상 방사능 독성이 지속되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도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한다. 주민이나 지자체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험하고 안전성마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과 지역민을 무시한 비민주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만의 하나,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학술 목적으로 위장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을 리 없다. 설령 안전하더라도 의견수렴과 주민 합의는 꼭 필요한 절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질연구원은 사업추진의 경위 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할 핵 폐기물 처리를 ‘짹짹’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원자력의 첫 걸음은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 해남군도 사업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불법과 위법을 철저히 가려내 자치단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바르자 마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주변에 레바논 군인들이 배치돼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國政監査)’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면밀히 따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다.

지난 7일 막을 올린 올해 국감은 지난 한 주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는 실종된 채 소모적인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광주와 전남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상임위원 일정을 살펴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14일 나주에서 한전 등 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실시하며, 17일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 광주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이러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국감을 연다. 마지막으로 24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국세청과 광주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전남 국감이 시작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내 각종 현안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역민들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광주 민간·군공합 통합이전 문제를 비롯해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 광주인공지능 2단계 사업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총선을 통해 대부분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이들의 정치적 능력을 증명받는 사실상 ‘공식 데뷔전’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국감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